

서야만 한다. 기도도 아니하는 인간의 활동들에 거룩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단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창조세계나 성경에서나 모든 울타리들이 열려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할 것을 가르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는 신문을 읽음으로 모든 인간의 외침들을 듣는다. 또 성경 읽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것을 듣게 된다. 성령은 말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읽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나 주석에 있어서 병이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읽는데서 오는 것이다. 사람은 잘 읽는다 하지만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은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하기를 배우는 자는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어 그의 큰 행적들을 전파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읽고 교회 문턱에 들어 오는 자에게 소리를 내어 주어 그리스도안의 큰 비밀이 어떠한을 성도들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歷史에 있어서의 進歩의 개념

— 進歩主義史觀의 이력서 —

< The idea of progress in history >

이상규 교수

< Th. M >

I. 진보개념의 기원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역사를 순환적(Cyclic)인 것으로 이해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았던 저들은 역사를 자연과 천체운행을 통해 이해 하려했던 것이다.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영위했던 바, 삶의 환경 속에서 우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밀폐된 실체이며, 시간이란 하나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일한 궤도를 순환하는 수레바퀴적인 것으로 이해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란 뚜렷한 출발이나 종말이 없이 무한한 계속만이 있는, 의미없는 반복 곧 영원회기적(永遠回歸的)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 회기적 이해는 결정론적이며, 모든 우주의 구조는 변화될 수 없는 틀로 짜여져 있어서 창조란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간안에 새로운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역사를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詩)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심오하다고 보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였다.

그리이스 철학이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였다. 플라톤도 탐구할만한 가치있는 대상은 자연의 원형이며, 불변적인 것, 영원한 것이지 시간적인 것, 역사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보았다.

역사는 목표도 없고, 완성도 없으며, 종말도 없는 무한한 반복만이 있다고 보았던 저들에게 진보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희랍인이 세계관의 기저(基底)에 흐르는 사상은 운명론이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 운명(Μοιρα)은 영원 불변한 것이며, 자연적인 도덕율이었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인간은 물론 심지어는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Zeus)조차도 운명에 복종해야만 했다. 이러한 운명론적 역사의 반복과 순환을 믿었던 저들은 역사에 있어서 진보의 개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의 개념은 히브리인의 직선적인 역사 이해에서 태동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목민이었던 히브리민족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고 늘 새로운 초장을 찾아 떠나야 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새로운 삶의 장(場)을 향해 떠나야 했던 히브리인들은 희망 신학자들의 말처럼 과거나 현재에 집착할 수가 없이 언제나 새로운 내일의 터전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와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희랍인들의 회기적인 이해와는 달리 역사에 대한 직선적 이해를 갖게 되었고, 여기서 부터 진보의 개념이 짝이 났던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의미없는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유의미한 진보이며, 분명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역사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일원론적(一元論的)인 것이었고, 그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초역사적인 이념을 찾으려는 역사 인식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편사(universal History) 개념은 히브리인의 역사 이해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쿨만(O. Cullmann)의 말처럼 히브리인들은 처음(창조)과 나중(終末)이 뚜렷한 역사관의 소유자였기에 희랍인들처럼 옛것의 반복이나 지난 날의 황금시대에 대한 회상보다는 무한히 열려진 약속된 미래를 향한 직선적인 진보사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속(예를들면 메시아약속)에 대한 기다림

의 역사였다(Messianism).

역사에서의 진보의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해에서 태동되었고, 역사에서의 진보를 믿었던 저들은 역사에서의 의미를 묻게 된 것이다.

이러한 히브리적 역사시대를 계승한 것이 초·중세 기독교였다. 희랍적인 역사개념은 이 시대의 기독교적인 사관에 의해 극복되고, 역사인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어거스틴(Augustine)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역사를 운명론적인 반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관계로 보고, 이 관계가 시간 속에 전개되는 직선으로 이해했다. 즉 그는 역사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 종말론적, 구속사적 역사관을 확립하였다. 또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일원론적인 보편사 개념을 확립했다.

이 보편사 개념이 국제법 배태의 사상적 기초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에는 희랍사가와 다른 두가지 특정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간 이해와 기독교적 인간이해인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반복이라는 희랍인 등 이교도(異教徒)들의 시간관의 거부에서 출발하여, 시간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에 하나님이 설정한 끝에 있다고 봄으로서 역사의 종말을 설정하였고, 이 시간의 과정 속에는 동일한 것이 회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새것이 발생하고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고 보아 진보개념을 전승했던 것이다.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에서 보게 되는 또 한가지 전제는 그의 인간 이해이다.

희랍인 등 고대사관에 의하면 사람은 우주의 유기적인 성원이며, 자연 속에 포함된 자연의 일부이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을 세계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는 인간의 영혼과 자아를 보았고, 자유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또 이 자유 의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항하는 자유

가 주어진 것으로 보았다 (The city of God, Book XV, Chapter 1). 특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희망적인 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건설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새예루살렘 곧 영원한 의, 사랑, 기쁨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의 인간의 진보가 절정에 달할 때 이루어지는 지상왕국(地上王國)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종말을 선언한 뒤에 그분 스스로 세우실 하늘의 왕국으로 보았다.

역사는 이 왕국을 향한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2. 진보사상의 발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진보개념은 사실 계몽주의시대(18C)에 와서 비로소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어거스틴의 역사관은 심한 도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중세 기독교적인 진보의 개념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세속화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볼테르(Voltaire, 1694 ~ 1778)와 기본(E. Gibbon, 1737 ~ 1794)에게 와서 역사는 초월적 경륜이나 신(神)의 뜻에 의해 전진(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자율적이며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말하자면 역사이해에 인간 이성을 절대시 하는 합리론적 진보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17 ~ 18 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의 뒷받침 되었다.

사실 양차 대전전에 흥미했던 역사에 대한 낙관적 사고는 바로 여기서 배태되었다.

이제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 이성이 절대시된 가운데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진보)을 믿으며 신국에 대한 기대를 유토피아 개념 속에 세속화 시키고 말았다.

그러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가 역사 안

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진보의 개념으로 세속화 되었는가?

이것은 실로 흥미있는 물음이 아닐 수 없다. 그 해답은 지난 2 ~ 300년 간에 걸친 서구 사상사속에 숨어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그 권위를 대신하여 계몽 사상기의 근본신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시간의 피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적 소망을 상실하게 했고, 기독교적 전승에 익숙한 계몽주의자들, 人文主義者들은 기독교적 소망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진보로 이룰 수 있다고 본 지상의 유토피아를 대치시킨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진보에 대한 숭배'를 기독교 교리와 인간 중심적인(합리주의적, 계몽주의적) 낙관론 사이에 태어난 서자(庶子)라고 불렀다.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진보의 개념이 세속화된 근저에는 계몽주의 이후의 인간 이해가 기초되어 있음은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인간관 혹은 인간 이해는 모든 학리(學理)사상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상 체계이든 그 변화는 인간관의 변화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 이해의 큰 변화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충족적, 자율적 존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인간 이성은 신적 계시의 자리를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진보사관은 18세기 말의 콩도르세(Condorcet, 1743 ~ 1794)라는 불란서 사회 철학자에 의해 가장 뚜렷한 체계를 이루고 나타났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품고 있던 계몽주의 시대의 일반사조가 그의 진보사관속에 질계 반영되어 있다. 불란서 혁명의 유력한 관여자였던 그가 나중에는 도리어 옥사 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도망하던 중에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史的 概觀』(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u progres de l'esprit humain, 1784)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가 원시 상태로부터 점차로 발전해서 당시의 불란서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기까지 진보해 왔다고 주장하고, 인간 이성과 과학 기술 등으로 모든 인류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관망하기도 했다. 즉 그는 무한한 발전과 인류 사회의 번영을 믿었던 것이다.

헤겔(G. W. F. Hegel, 1770 ~ 1831)의 정(正) → 반(反) → 합(合)의 변증법적 진행 과정도 진보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그와 대립되는 반의 단계로 발전하고, 여기서의 상호 대립은 합의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은 인간 이성의 발전 단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헤겔의 이 변증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 내용, 즉 정신적 진보를 물질적 진보로 대치시킨 것이 마르크스(1818 ~ 1883)의 견해이며, 물질적인 재조건에 따라 관념론적인 상부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견해도 이 범주안에 든다.

3. 19세기에 있어서의 진보의 이상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서구 사회의 진보 개념은 절정에 이르러 있었고, 서구 사상의 기본 체계가 되어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확고히 다져갔다.

그러면 왜 19세기에 와서 진보 개념이 그렇게 편만하게 되었는가? 특히 3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진보적 세계관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 시기의 과학적 진보는 놀라울 정도였고, 온갖 종류의 발명품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물품들이 생산되어 인간의 삶에 진보적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같은 자연 과학과 기술의 성취는 인간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앙하게 되었고, 희망인들이 가졌던 4계절의 순환으로 비유되었던 결정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 면에서 얻은 소득은 사회면에서도 동등한 발전이 가능함을 암시해 주었다.

19세기의 과학 숭배 풍조를 잘 보여주는 학자가 흔히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트 콩트(Auguste Comte)이다.

그는 문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곧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과학적(혹은 실증적) 단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대략 상승 질서로서 종교의 지배, 추상적 이성, 또는 철학의 지배, 과학의 지배를 가르킨다(Auguste Comte, *The positive philosophy, traus, and rev. Harriet Martineau, chicago; Belford, Clarke Co. 1953*).

과학에 대한 신앙은 인류의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주의적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진보에 대한 희망을 신봉했던 19세기 사조에 기여했던 두번째 사상은 진화론(Darwinism)이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야만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여 부단한 상승 운동을 통해 보다 더 『인간적인 상태』로 진보한다고 한다.

뉴만 스마이드(Newman Smythe)나 테이아르 드 샤르팡(Teilhard de Chardin)은 죽음의 경계 저편에 진화의 절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진보론자들은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인간의 진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 유형은 철저한 경쟁과 부적격자의 자연도태, 곧 적자 생존을 통한 진보를 강조하였고, 다른 한 유형은 진화를 통해 인류가 아주 인간적이고 유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개척하고 박애주의적 개척을 통해 보다 더 큰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에서도 진보 개념을 볼 수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보면 약간의 어려운 시대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세계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계급없는 사회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생물 진화론은 19세기 진보이념을 뒷받침 했다.

세번째로는 유럽이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간 대륙규모의 전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 100년간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진보의 이념은 정점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3가지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 진보에 대한 이상은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심어 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절정에 달한 19세기의 진보의 이념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특히 독일 등 대륙의 신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소위 사회 복음

(Social Gospel) 운동을 제창하기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다고 하여 신국(神國)을 역사화(歷史化)하여 지상천국 건설을 신봉하기에 이르렀고 內在的天國觀이라는 세속적 유토피아니즘이 신학계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 진보개념의 쇠퇴

진보사관은 인류 사회가 발전되고 있을 때, 산출되는 사상이고, 혼란이나 위기 전쟁에서가 아니라, 질서와 안정과 발전의 상태 속에서 형성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기대되는 진보에 대한 낙관론적 예견이 세계사적 질서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될 때는 진보의 개념을 퇴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0 세기를 넘어 오면서 두차례의 세계적인 대전은 진보사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잘 아는 일이다.

제 1차 세계대전(1914 ~ 18)을 기점으로 이전 시대까지 확신에 찼던 낙관론은 20 세기의 비관론으로 급강하 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은 체험했을 것이다.

20 세기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나 공산주의와 파시스트 독재정권의 수립, 노예, 포로 수용소의 비참한 실태에 대한 체험이나 보고,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과 위험 등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적 이상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았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의 진보 관념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1차대전후에는 슈펜글러(O. Spengler, 1880 ~ 1936)의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이, 2차대전 후에는 토인비(A. Toynbee, 1889 ~ 1975)의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가 나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진보라고 생각되던 인간 활동이 도리어 인간생활을 불행과 혼란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며 진보의 앞장을 서 있다고 믿었던 서구의 문명이 도리어 서양을 몰락 과정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진보에 대한 이상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꿈(이상)들 자체가 부적당하고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점에 있다.

일세기 전만 하더라도 물질적 풍요를 확신하였고 이 물질적 풍요는 굶주림과 증오와 시기심과 죄악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보았고, 생물학적인 진화는 인간을 보다 완전히 개발하여 이성과 인격이 개발되어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꿈꾸었으나 인간 상호간의 고독과 소외감, 불신의 벽은 두터워져 갔고, 민주주의적 제도는 자유와 평등을 선사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독재적인 전체주의적 정권이 수립되었고 대중 교통과 통신, 전자 과학이 인간의 삶의 안위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정복을 향한 인간의 야망을 위한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낙관주의에 대한 희망이 퇴보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고 수세기 동안 망각해온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곧 인간 내부에 있는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진보개념은 인간이성의 자율성을 기초로한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부인하는데서 출발했던 것이 아닌가?

5. 진보사관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보의 이상 혹은 진보주의 사관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사실 진보에 대한 이상이 가져온 기술과학의 발전이나 물질적 풍요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진보에 대한 이상이 인간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가지 점에서 진보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진보사관은 영속적인 변화라는 역사의 기본적인 사실을 파괴하고 있다.

진보사관은 변화가 곧 진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전제가운데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나 역사현상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지평을 상

실하고 있다. 역사적인 변화 속에는 진보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역사 스스로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개념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지난 세기의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야만적인 상태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과 같은 보다 인간적인 상태로 진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두번째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진보사관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진보사관은 인간의 완전성, 자기 충족성, 자율성이 기초가 된 것으로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인간 내부에 있는 본질적인 죄와 악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유토피아란 이름 그대로 '아무 곳에도 없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인간의, 인간에 의한 지상낙원으로 세속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류 혹은 역사과정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보이념은 진보를 이루는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보다는 인간에게 그 역할을 부여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신념이 쇠퇴함에 따라 진보이론이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한 그 이후의 세계역사, 곧 제2차대전, 핵무기의 위협, 공해, 인구폭발, 전자사업의 발전, 그리고 유전공학의 성취 등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현실에서 진보에 대한 이상의 한계를 보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반항하는 인간내부의 악이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서의 진보란 인간의 미래에 가공할 만한 위협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기

독교는 인간의 제한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무한한 진보만을 믿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없이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고 마는 비관주의자도 아니다.